

사설

자비 나누는 봉축행사

불교계 최대의 명절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봉축행사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주제로 25일부터 5월14일까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조계종 봉축위를 비롯 전국의 시도 단위의 봉축위원회가 결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봉축행사는 등의 다양화, 우리 이웃, 지자체의 참여 유도 등 불교적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혼탁한 사회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이웃, 불행한 이웃, 불행한 이웃에 대한 동체대비의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부처님은 고행 끝에 깨치신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의 불성을 일깨웠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평등함을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셨고 나아가신 끝없는 고통의 윤회사를 슬기롭게 벗어나도록 가르쳐주었다.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이 기쁜 중생들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 참뜻을 모른다면 우리들은 실천으로 기려야 할 것이다. 근자에 북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이 심하다는 소식이 나오거나 아사했거나 아사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세계 여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에서도 불성을 일깨우신 것도 어쩌면 이런 고통을 깨우치고 벗어나실 실천적인 용기를 주기 위한 참뜻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우리 모두 가슴으로 새기면서 북한의 어려운 동포를 불쌍히 여겨 괴로움과 고통을 뽑아주는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펼치는 새로운 날로 새겨보자. 우선 이런 실천을 위해서는 불성이 지켜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불성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끝으로는 주저없는 실천으로 행동화되어야 한다. 먼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깨우쳐 주셨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이도 있고 또 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불성이다.

우선 움직여 보자. 우선 자신의 마음을 이웃의 고통과 분담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일도록 움직여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움직이는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과감히 제거해 보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마음속의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내면이 고통이 없다면 이웃이 하는 마음은 없는가. 나의 충족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런 연후에 자신의 실천적 자비의 불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 막고 있을 장애요인은 없는가를 살펴보자. 정치적 사회적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이질성은 어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등을 깊이 살펴 이를 과감히 직면하여 동질성을 높이고 이질성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이런 실천의 결과는 당장은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멀리하는 개인의 불성을 실천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이런 자비로움이 온누리를 뒤덮어 이 세상이 아귀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윤투피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열린마당

성금의 투명성

성금·후원금 모금이 보시형태로 관행화된 가운데 성금의 투명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4년 일명 '일력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소책새마을 성금포탈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교방송 성금지출에 의혹이 제기됐다. 성금에 담긴 뜻과 어떻게 관리 활용돼야 하는가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시금 허술히 쓸수없는 공유물

일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우리에게 성금이라는 말보다 보시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보시금 으뜸은 무주 상보시다. 뜻을 으뜸으로 그렇게 낸 마음자리 그 자체를 가장 값지게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금을 내는데 있어서 이리 저리하게 재고 따지는 번질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처음 낸 그 선한 마음자리를 이리저리 헤집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시금(성금)은 불교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교단의 공유물이고 특정한 쓰임새를 정하고 모은 성금은 승단의 지도 아래 집행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최근 종단에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준조세라는 시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행의 기본인 보시 회사의 선행을 유도하는 것 또한 종단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성금의 존 지양 재정운영 검토

신희권 (자비의 전화 사무국장)

요즘 실시일반의 정성으로 모아지는 성금과 관련하여 유용 횡령 등의 단어들에 교계에서 흘러나오더니 대부분의 소문들이 사실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이런 사태는 우리 스스로가 명분만 있으면 가장 간편하고 쉽게 성금방식을 택하고 있고 티끌처럼 모여진 보시금의 소중함에 대해 도외시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불사를 추진할때 불자들의 성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찰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불사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성금(보시금)이 모금부터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함이 제일요건이라 하겠다. 모금주최측의 무책임성이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모금 본래 취지대로 사용돼야

신관호 (동국대 100주년사업본부 부장)

모금은 재원 확보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공유하는데 있다. 또 모금은 마련된 기금을 통해 기금을 쾌척한 사람들은 물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 여타 시설 및 비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안고 있다. 다만 모금은 공익과 사회환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동국대 역시 모금의 본래 취지대로 성숙된 모금문화 조성 및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국대는 단순히 '돈을 내라'는 차원이 아닌 구체적 사업을 제시한 팜플렛 등을 통해 후원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국대 발전이 곧 불교계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

바른 사용위해 안전장치 필요

이지혜성 (불자·서울시 광진구)

불교방송이 생기면서 '자비의 전화'를 통해 불교를 더 잘 알게된 불자의 한사람이다. 불교방송 프로그램추진위원회가 생겨 조금이라도 방송에 도움을 주려고 매달 조금씩 성금을 냈는데 불교방송사고 직후 좀처럼 마음이 안생긴다. 아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가 것이 옳을 것이다.

불자들의 성금후원은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본다. 이처럼 성금내는 사람은 순수한 불심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외면한다면 사회법에도 걸리지만 스스로 죄업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정성어린 성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한다. 많은 불사를 위해서도 불자들이 더이상 신심떨어져 성금내는 것을 고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불교방송 성금모금회 회장.

진단

보각 (중앙승가대 교수)



보시금을 내고 받고 써서 회향할 때 불교에는 삼론정정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주는사람 받는사람 쓰이는 곳이 다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가 현대화 된 만큼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전의 소책새마을의 '일력사건'도 후원금의 유용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요즘 소책새마을이 승가대 부설로 정상화되면서 가장 신경쓰는 업무가 후원금의 투명성이다. 또 목적을 자세히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금을 낸 사람이 확인 가능한 감시기능과 성금을 내면 정확히 영수증을 첨부하고 공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주고 받고 씬'이 깨끗해야 영수증·지출 공개 제도화

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부기재등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만들어졌어도 의식이 따르지 못하면 허울좋은 구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떤 것을 남에게 베풀고 환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시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해서 복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성금이나 보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유바라밀 중에서 가장 근본은 보시의 공덕이다. 보시를 통해서만 불국토도를 이룰 수 있다. 결국 실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말씀중 경제운영방법을 보면 '열에 하나는 남에게 이익되게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성금은 무엇보다 내가 베풀고 해서 남을 이익되게 해주는 자비의 실천행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성금을 내는 착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단 한푼이라도 투명하게

교계 성금현황

교계의 성금모금과 관련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불교방송의 건립성금이 장부기록없이 쓰여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성금이 제대로 쓰여지나하는 의구심조차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계의 성금모금은 동국대 승가대를 비롯한 교육불사와 조계종이 벌이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단체들의 북한동포돕기, '할만 대장경에 새 생명을', 군불교진흥회의 장병위문품보내기, 재난구제를 돕는 일 등 다양하다.

약정 성금도 동국대 3백25억 8천만원 승가대 86억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8억 4천2백만원 한민족공공체를 위한 성금모금 3억7천여만원(탁발 1억7천 방식법회 2억(추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1억6천여만원 군불교진흥회 1천8백만 원등 가시화된 금액만도 총 4백24억 1천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불교방송 지방개국성금 복지단체 후원금, 단위사찰들의 모금까지 더하면 성금액은 더 커진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성금모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계종의 한민족공공체 성금모금운동이 내부적으로 일부에서 준조세형식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명분을 고려하면 불교복지자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반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매년 복지시설의 확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펼쳤던 '포대화상' '연등' 저금통을 제작해 놓고도 최근 성금모금운동의 확산으로 보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보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교계의 특성상 성금접수는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성금모금이 보시형태로

재정 공개등 운영 내실화 절실 "장부없이 주먹구구 사용되기도"

관행화된 교계에서는 '성금모금 근거자료가 없는 관계도 있는 등 부실한 처리로 불신을 유발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가까 슬러 일력의 소책새마을의 후원금 전용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불교방송의 공공유용사건은 극에 달해 불자들에게 불신과 충격을 주고 있다.

성금은 투명성 확보가 생명이다. 교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금모금도 일정기간의 모금액수와 모금의도를 제시해주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접수하는 곳도 영수증을 첨부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혁단안이 투명성확보를 위해 기안했던 사찰재정공개 등 내실화된 운영이 꼭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불기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대제

■ 일시 : 1997년 5월 11일 (음 4.5) 오후 4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 행사내용

- 1부 > 문화행사 (오후 4시)
- 2부 > 연등대제 법회 (오후 5시)
- 3부 > 제등행진 (오후 6시 15분)

제등행진 길
부산역광장(출발) - 부산진역 - 부산진시장 - 불교부산방송 - 범남골 로타리(해산)

■ 상징물 점등식
일시: 4월29일(음3.23)화요일 오후6시30분 장소: 부산역 분수대옆

■ 자비의 탁발
일시 : 5월 8일(음4.2) 목요일 오후 4시~5시
장소 : 시청앞 - 광복동 - 대청동 - 국제시장

■ 문의
전화 (051)867-0501 전송(051)867-0504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대 회 장 성 오 수석부대회장 춘 광
준비위원장 도 봉 봉행위원장 류진수

부산시민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5월11일(일) 오후4시 부산역 광장** 으로 온가족이 함께 오십시오.